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김정윤 루시아, 이정욱 리오바
다음주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루드비나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64
교무금: \$ 200
특별헌금: \$ 200(익명)
합 계: \$ 564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6월 19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6월 26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부속가(성체송가)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코 14,22).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09년 6월 13일

<제1독서> 탈출기 24,3-8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제2독서> 히브리서 9,11-15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화답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당신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이오니,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당신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 마르코 14,12-16.22-26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둥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서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오늘의 성가] 시작: 1 봉헌: 211 성체: 162 파견: 208

† <생명의 말씀>

“...내 방이 어디 있느냐?”

구요비 옴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아주 경건하고 독실한 개신교 형제들 중에 가톨릭의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여하였다가 ‘신자 아닌분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한 개신교 신학자께서는 ‘성체성사는 칼과 총탄보다도 강합니다’ 라고 하였다.

미사 예식 중에 집전자인 사제만이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들이 있다. 예물준비 때에 사제는 포도주에 물을 한 방울 섞으며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한 인성(人性)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참여케 하소서!’ 하고 속으로 기원한다. 사실 내게는 이 순간이 미사 중에 가장 행복한 때이다! 하찮은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를 이룬다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 인간성(人性)이 하느님의 신성(神性)으로 변용(變容)될 수 있다는 희망뿐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자체의 진보와 변모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

신토불이(身土 異)가 말해주듯 어쩌면 인간의 몸과 정신도 그가 태어난 땅의 소출을 섭생할 때에 최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듯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나날이 성장해 간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천사의 양식(Panis Angelicus), 신령한 음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말하자면 일종의 ‘핵분열’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원리가 창조 안에 도입된다. 이 변화는 온 존재의 핵심에 파고들어 실재를 변화시키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1코린 15,28)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한다(사랑의성사p.32).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영성체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수동성에 머물러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 19)’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이신다. 그러기에 당신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봉헌물은 이 세상의 성장, 우주 만물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장 뿐이다 (페이아르드샤르맹).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익명의 사람이 제공하는 큰 이층 방에서 거행되었다고 전한다(15절). 예수님은 이 집주인에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방이 어디 있느냐?(14절)’하고 물으신다. 이 부유한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제일 큰 방을 내어 드린다. 이 주인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22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상통한다. 예수님의 자기증여,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심을 닮고 있다. 이 자기증여의 텅 빈 공간 안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 <알려드립니다>

- ❖ 성당 여름 캠프로 인하여 다음주 (6/20) 미사는 없습니다. 캠프에 참가 못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일요일날 St. Paul 이나 인근 다른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St. Paul 성당은 주일날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 ❖ 오늘 미사후 지하 친교실에서 여름 캠프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가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학교 담당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오는 6/27과 7/4 두주간 동안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혹시 이 기간동안 주일학교 수업을 맡아주실 수 있는 교우분이 계시면 사목회장이나 주일학교 담당 이은아 자매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묵상

많은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 소식’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신비스러운 소문’에는 호기심 이상으로 반응합니다.

성체성사의 신심이 부족한 탓입니다. 교회 내에 신심 활동과 쇠신 운동이 많지만 그 귀착점은 언제나 성체 신심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과 ‘성체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던 분과 성체성사의 예수님은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힘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이러한 신비를 묵상하는 날이지요. 그러니 성체를 모실 때마다 예수님의 힘을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함께하셔야’ 인생과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당신께 오라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정성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이 그분께로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체 신심은 강화됩니다. 깨달음을 만납니다. 신앙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유판식 토마스>

